

살펴 보기

: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

소통



박민수

대한산업보건협회
울산산업보건센터
사내기자

1.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합
2.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

‘소통’은 어학사전에 검색을 하면 이러한 뜻으로 풀이되는 단어다. 그 뜻과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실행하고 현실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‘소통’이 아닌가 한다. 그래서 울산산업보건센터(이하 울산센터)에서 2021년의

가장 큰 목표로 정한 것이 바로 이 ‘소통’이었다. 산업보건이라는 큰 틀 가운데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각자 상이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협회이기에 부서별로 조금은 가깝고도 먼 사이로 지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. 내근보다 외근이 많은 직종이라 업무가 바쁜 시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도 마주치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다. 더구나 울산센터는 2019년 12월 신사옥 매입으로 건강진단팀을 제외한 다른 부서들이 신사옥으로

1팀



2팀





이사를 하였고,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대부분의 센터 내부 공식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 접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다.

다행히 백신 접종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'소통'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고민한 결과, 「센터직원 소통향상을 위한 팀 구성 및 운영」을 시작하였다. 직급별로 1팀에서 5팀까지 구성을 하되 최선임 그룹인 1팀은 매월, 그 외 팀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1회씩 진행을 하기로 하고 첫 모임을 6월에 시작하였다. 대주제인 소통을 목적으로 세부적인 목표나 해당 모임의

주제는 팀별로 자유롭게 선정하여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. 소속원들의 부담이 적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된 '소통' 첫 모임.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하였지만 회가 반복될수록 어색함이 반가움으로 바뀌며 모든 모임을 끝낸 12월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한결 편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. 소통을 위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해가 바뀌는 2022년에도 꾸준히 계속된다고 하니 앞으로 울산센터는 불통으로 인한 문제점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. 또한 '소통'으로 다져진 직원들의 우호적인 관계는 센터와 협회의 미래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. 🐾